

현안과 과제

■ 남북 사회문화협력의 비전과 과제

목 차

■ 남북 사회문화협력의 비전과 과제

Executive Summary	i
1. 남북 사회문화협력의 의미	1
2. 남북 사회문화협력의 특징	2
3. 남북 사회문화협력의 비전과 과제	5
4. 시사점	11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 통일연구센터 : 이 해 정 연 구 위 원 (2072-6226, hjlee@hri.co.kr)

 : 이 용 화 연 구 위 원 (2072-6222, yhlee@hri.co.kr)

Executive Summary

<요약>

■ 남북 사회문화협력의 의미

2008년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남북 사회문화협력은 급감했으나,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기로 합의하면서 사회문화협력 재가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남북 사회문화협력은 여타 남북협력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은 뿐 아니라, 평화적 남북관계 형성과 남북한 사회통합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통일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 남북 사회문화협력의 특징

1985년 시작된 남북 사회문화협력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하였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규모 체육행사 등 사회문화협력이 본격화되었으나, 남북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극히 일부 사업만 유지되었다. 둘째, **2000년대 초중반에 집중**되어있다. 1991년부터 2017년 말까지 통일부에서 승인한 사회문화협력 사업 가운데 2003~07년간 승인 사업이 121건으로 전체 76% 수준이다. 셋째, **체육 분야 위주의 회담이 진행**되었다. 전체 사회문화협력 회담 가운데 체육분야 회담은 47건으로 전체 85%에 달한다. 남북 사회문화협력회담은 1979년 2월 남북탁구협회 회의로 시작되어 총 55건의 회담이 이루어졌다. 넷째, **실교류는 종교분야에 집중**되었다. 남북간 방문 건수 및 인원은 종교 분야가 493건(전체 27.7%) 및 9,794명(전체 34.7%)으로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체육 협력은 타 분야로의 시너지를 창출**하였다.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행사로 남북청년 공동문화행사가 개최되는 등 분야간 시너지를 창출하였으며, 역사와 민족언어 등에 대한 공동 연구로 민족 동질성 회복 사업도 다수 추진되었다.

■ 남북 사회문화협력 비전과 과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 사회문화협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바로, **하나의 한반도(One Korea) 실현을 위한 통일한국시민(One Citizen) 이루기**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북한주민 건강증진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의료·보건 부문에서는 의약품, 의료기구, 응급의료 설비 등 의료 인프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영양지원 부문에서는 취약계층 영양 개선을 위한 급식 및 식료품 제조 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 공동 수자원 관리 사업'**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 남북한 공유하천 수해방지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남북간 신뢰 회복 및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용수공급, 치수용 댐건설 등 남북한 종합 수자원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립 및 산림·축산 방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북한의 산림 복구 계획을 위해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남북 산림협력 공동 실무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남쪽의 산림 녹화 및 생태계 복원에 관한 선진 기술과 경험

전수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 공동 산림 방제사업 및 AI 및 구제역 등 대북 축산 방제사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자체간 상호 협력 증진'이 필요하다. 남북 지자체간 관계 연속성 확보 및 사업 시너지 증대 사례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특히, 지역간·주민간 실질적 교류 증진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한반도 역사 바로세우기'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제 강점기 공동 연구는 물론, 고구려 고분 남북공동 발굴조사 등 기존 추진 사업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 여섯째, '남북 청소년 하나되기' 추진이 가능하다. 남북 청소년 한민족 역사책 공동 발간, 남북한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 등 역사 문화 및 관광 등을 통해 남북한 청소년의 한반도 역사에 대한 공통 인식 함양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서평(서울-평양)대축제'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평축구대회 등 남북 체육분야의 교류를 재개하고, 씨름 등 남북 민속문화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미술, 음악, 서예 등 순수문화 교류전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남북 사회문화협력의 비전과 과제 >

구분		내용
비전		- 통일한국시민(One Citizen) 이루기
실천 과제	사회	① '북한주민 건강증진지원사업' 추진 ② 남북 공동 수자원 관리 사업 추진 ③ 조림 및 산림·축산 방제 사업 추진 ④ 지자체간 상호 협력 증진
	문화	⑤ '한반도 역사 바로세우기' 추진 ⑥ '남북 청소년 하나되기' 추진 ⑦ '서평(서울-평양)대축제' 추진

■ 시사점

남북 상호 신뢰 회복과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용이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첫째, 사회문화협력사업 추진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기합의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사회문화협정' 체결 등 협력 협의의 정례화 및 제도화 추진이 가능하다. 둘째, 인도적 지원 등 시급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 제약공장 및 병원 설립 등 주로 종교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지속하고, 정부 차원으로 확대 추진이 가능하다. 셋째, 기추진 사업의 재검토 및 재개 노력이 필요하다. 역사 유적 발굴 및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성과를 도출한 기추진 사업들을 중심으로 한 재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한반도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 등 장기적이고 중요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무심기 사업, 접경지역 공동방제사업 등 기존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DMZ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등 접경지역 환경 보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1. 남북 사회문화협력의 의미1)

○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한반도 긴장완화 가능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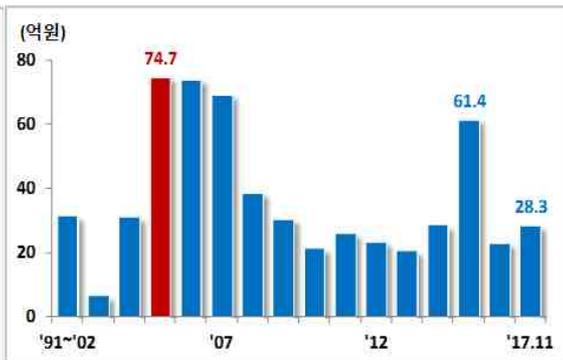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면서 남북 사회문화협력 재개 및 한반도 긴장완화 가능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 제기
 - 남북 사회문화협력은 2007년 남북간 교류 건수 350건, 교류인원 7,639명을 기록했으나, 2008년 남북관계 경색 이후 급감
 - 2008년 이후 남북협력기금의 사회문화협력 지원도 급감(2005년 74.7억 원→ 2017년 28.3억 원으로 크게 감소)
 - 하지만 2018년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로 남북 사회문화협력 확대 가능성 고조
- 남북 사회문화협력은 여타 남북협력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평화적 남북관계 형성과 남북한 사회통합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통일비용 절감에 주요
 - 남북 사회문화협력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학술 등에 관한 제반 활동2)을 말함
 - 남북 사회문화협력은 분단으로 인한 이질화를 극복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며, 나아가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에도 도움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남북 사회문화협력의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남북 사회문화협력의 비전과 발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남북간 사회문화협력 방문 >



자료 : 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 각호.
주 : 실제 성사 건수 기준.

< 남북협력기금 사회문화협력 지원 >



자료 : 통계청, 북한통계.
주 : 집행금액 기준.

1) 본 보고서는 현대경제연구원, “특집 : 광복 70년 회고와 새로운 30년의 남북관계 비전과 과제”, 『통일경제』, 2015년 1호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것임.
2)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예관규정(2012.7.26, 개정)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학술 등에 관한 제반 활동으로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한·북한 또는 제3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획·실시 및 사후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2. 남북 사회문화협력의 특징

○ 남북 사회문화협력은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좌우, 체육 분야 위주의 회담 진행, 실교류는 종교 분야에 집중 등의 특징을 가짐

①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좌우) 2000년대 들어 사회문화협력이 본격화되었으나, 남북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극히 일부 사업만 유지

-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류경정주영 체육관 개관,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 등 대규모 체육행사를 비롯해 6.15 남북공동행사, 8.15 공동행사 등의 기념일 공동행사 등이 성사³⁾

· 2007년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는 남과 북이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 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

· 2008년 이후 개성 만월대 공동조사사업, 거례말 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신계사 복원 기념 남북 공동 법회 등 일부 사업만 유지

② (2000년대 초중반에 사업 승인 집중) 1991년부터 2017년 말까지 통일부 승인 사업 159건 가운데 2003~07년간 승인 사업이 121건(전체의 76%)에 달함

- 1990년 9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 1991년부터 2017년 까지 통일부가 승인한 사회문화교류협력 사업은 총 159개임

·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1997년까지 7년간 사회문화협력 사업 승인은 3건에 불과

· 1998~2002년간 27건으로 확대되었으며, 2003~07년간 121건으로 급증

· 2008년 이후 급감하여 2017년까지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은 8건에 그침

< 남북간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 현황 >

(단위 : 건)

연도	91-97	98-02	03-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합계
건수	3	27	121	3	0	1	1	0	0	1	2	0	0	159

자료 : 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 각호.

3) 박영정 외,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pp. 17~36.

③ (체육회담 위주의 회담 진행) 1979년 2월 남북탁구협회 회의를 시작, 총 55건의 사회문화협력 회담 가운데 47건(전체의 85%)이 체육분야 관련 회담

- 총 55건의 회담 가운데 교육학술 분야 4건, 한반도 환경 보전 관련 4건을 제외한 47건이 체육분야 관련 회담4)
 - 교육학술 분야 :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을 위한 제1~4차 실무접촉(2005. 9~2007. 4) 등 역사 공동 복원 사업 추진
 - 한반도 환경보전 분야 : 북한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남북실무접촉(2005. 4), 북한 구제역 방역지원을 위한 남북실무접촉(2007. 3), 북한 산림병충해방제 지원을 위한 남북실무접촉(2007. 5), 남북기상협력 실무접촉(2007. 12) 등

< 남북간 사회문화협력 관련 회담 추이(1979년~2017년) >

(단위 : 건)

연도	79	84	85	86	87	89	90	91	02	03	04	05	06	07	08	14	합계
건수	4	3	1	2	1	9	7	7	2	1	1	6	3	6	1	1	55

자료 :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사이트(<http://dialogue.unikorea.go.kr>) 참고.

④ (종교 분야의 방문 건수 및 인원 최다) 사회문화협력관련 남북간 방문 건수 및 인원은 종교 분야가 493건, 9,794명으로 가장 많음

-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관한지침」이 제정된 이후 2017년까지 사회문화 분야의 남북간 방문 건수는 총 1,777건으로 28,248명이 상호 왕래함
 - 전체 방문건수 대비 비중 : 종교(27.7%), 체육(20.1%), 교육학술(20.0%), 언론출판(17.2%), 문화예술(9.6%), 과학기술(4.1%) 순임
 - 특히, 북 → 남으로 방문은 체육분야가 전체의 55.9%를 차지

< 남북간 사회문화협력관련 방문 현황(1989년~2017년) >

(단위 : 건, 명)

구분	교육학술	문화예술	체육	종교	언론출판	과학기술	시민사회	계
남→북	344 (4,646)	163 (2,467)	325 (4,306)	490 (9,735)	303 (2,949)	73 (400)	20 (406)	1,718 (24,909)
북→남	12 (105)	8 (540)	33 (2,575)	3 (59)	3 (60)	0 (0)	0 (0)	56 (3,339)
합계	356 (4,751)	171 (3,007)	358 (6,881)	493 (9,794)	306 (3,009)	73 (400)	20 (406)	1,777 (28,248)

자료 : 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 각호 참고.

주 : 1) ()는 명을 의미. 2) 시민사회 구분은 2009년 신설.

4) 체육 교류는 평화유지 및 상호이해 증진 차원에서 상호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 도시국가간 전쟁이 빈번했던 고대 그리스 시절 올림픽 기간 중 모든 전쟁을 중단한 ‘에케체이리아’(ekecheiria) 전통. 1971년 미국과 중국의 평종외교, 동서독간 체육교류, 1988년 서울올림픽 동서 양 진영 참여 등이 체육 교류의 좋은 예임.

⑤ (분야간 시너지 창출) 체육 협력이 문화예술 협력으로 확대되는 등 분야간 시너지를 창출하였으며, 민족 동질성 회복 사업도 다수 추진

- 분야간 시너지 창출 : 체육 협력이 문화예술 협력으로 확대
 -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행사로 남북청년공동문화행사 개최, 2003년 류경정주영체육관 개관 행사로 남북통일음악회 개최 등
- 민족 동질성 회복 사업 다수 추진 : 일제강점기 공동연구, 개성 만월대·고구려 고분 남북공동 발굴조사,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 등 역사와 민족 언어를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 남북간 사회문화협력의 분야별 성과와 한계 >

구분	특징	성과	한계
종교	- 2008년 이후에도 중단 없이 접촉을 지속	- 교류의 지속성, 종교 건물의 복원 및 개축은 문화재 보존에 기여	- 교류의 비대칭성, 단순 지원 및 방문 수준의 교류
체육	- 남북간 상호왕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짐 - 북한에서 남한으로 방문 건수와 인원이 가장 많은 분야	- 국제대회 공동입장으로 한민족 과시, 대규모 상호 왕래 추진 -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점 마련	- 교류의 정례화 미흡
교육학술	- 역사 분야 등 상대적으로 이념 충돌이 작은 범위부터 협력 추진	- 역사 유적 발굴 및 UNESCO 등재, 장기적·지속적인 사업 추진	- 교육 분야의 협력은 단순 지원 수준
언론출판	- 남북간 공동 작업 진행 등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교류 추진	- 북한 주민 참여 유도, 민족 언어와 문학의 공감대 형성	- 저작권 교류 관련 제도적 장치 미비
문화예술	- 남북 사회문화협력 가운데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음	- 남북공동행사의 지속적 개최	- 공연교류는 일회성 이벤트에 그침, 영화교류도 초보적 수준
과학기술	- 북한은 우수한 인적 인프라 구비	- IT 분야의 성공적 협력, 인력 양성 효과	- 전략물자수출통제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제도적 제약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3. 남북 사회문화협력 비전과 과제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남북 사회문화협력 비전은 하나의 한반도(One Korea)를 실현하기 위한 통일한국시민(One Citizen) 이루기임
- 통일한국시민 이루기를 위해서 사회·문화적으로 다음과 같은 실천 과제를 고려할 수 있음
 - 사회적으로는 ① ‘북한주민 건강증진지원사업’, ② 남북 공동 수자원 관리 사업, ③ 조림 및 산림·축산 방제 사업 등의 추진과 ④ 지자체간 상호 협력 증진이 가능함
 - 문화적으로는 ① ‘한반도 역사 바로세우기’, ② ‘남북 청소년 하나되기’, ③ ‘서평(서울-평양)대축제’ 등의 추진이 가능함

< 남북 사회문화협력 비전과 과제 >

구분	내용	
비전	- 통일한국시민(One Citizen) 이루기	
실천 과제	사회	① ‘북한주민 건강증진지원사업’ 추진 ② 남북 공동 수자원 관리 사업 추진 ③ 조림 및 산림·축산 방제 사업 추진 ④ 지자체간 상호 협력 증진
	문화	⑤ ‘한반도 역사 바로세우기’ 추진 ⑥ ‘남북 청소년 하나되기’ 추진 ⑦ ‘서평(서울-평양)대축제’ 추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① ‘북한주민 건강증진지원사업’(의료+영양지원 package) 추진

- 의료·보건 부문 : 의약품, 의료기구·장비, 응급의료 설비 등 의료 인프라 지원
- 1단계 : 최우선 관리 대상인 전염성 질병(결핵, 폐렴, 간염,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긴급 의약품 상시 지원 체제’ 구축
- 2단계 : 국제적십자사(IFRC) 등 국제사회와의 공동 협력을 통한 간편 수술 기구(동상 치료를 위한 긴급 왕진 가방 등) 및 응급의료 설비 지원
- 3단계 : 북한 의료 시스템 복원을 위한 의약품제조시설 개·보수 지원(평성, 순천, 라남 제약공장), 병원 현대화, 남북 영양제 공동 개발, 북한 의료진 교육 등

- * 기초질병 퇴치 지원 : ‘북한어린이 질병예방 기금(가칭)’ 모집을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결핵, 말라리아, B형 간염 등 기초질병예방사업을 추진
- 영양지원 부문 : 취약계층(영유아 및 산모, 아동 및 노인 등)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 및 식료품 제조장비 지원
 - 1단계 : 건강취약계층의 생명 보호를 위해 분유 등 영유아 영양식 긴급지원, 산모 영양지원을 위한 철분제, 미숫가루 등 지원
 - 2단계 : 취약계층 생명 보호 및 일반주민의 영양실조 해소를 위해 기존 빵공장·영양식 생산 공장 확대 지원, 분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FAO 등)와 연계한 각 시군별 신규 생산 공장(콩우유, 영양 비스킷 등) 건설
 - 3단계 : 한반도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전국 단위의 사업으로 확대
- * 對北 구호지원물자 전달시스템 구축 : 쌀, 밀가루, 비료, 의약품 등 對北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되, UN, 국제적십자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구호지원물자가 북한 주민들에게 안전하게 전달·사용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 대북 인도적 지원의 단계별 추진 전략 >

구분	의료·보건 부문	영양지원 부문
1단계	- 긴급 의약품 상시 지원 체제 구축 · 결핵, 말라리아 등 전염성 질병	- 건강취약계층 생명 보호 · 영유아 영양식, 산모 긴급지원 등
2단계	- 국제사회 협력 통한 의료기구 지원 · 긴급 왕진 가방 지원 등	- 건강취약계층+일반 주민 영양 지원 · 기존 생산 공장 확대, 신규 건설 등
3단계	- 북한 의료 시스템 복원 위한 지원 · 의약품 제조시설, 병원 현대화 등	- 한반도 통일 기반 구축 · 1~2단계 사업 전국단위로 확대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② 남북 공동 수자원 관리 사업 추진

- 남북한 공유하천(한강하구~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확대 추진
 - 남북공유하천의 홍수조절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남북간 신뢰회복 및 상호 이익을 도모
 - 임진강 : 현재 정체상태인 임진강수해방지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북한에도 홍수조절 효과가 돌아갈 수 있는 임진강유역 종합개발 추진

- 북한강 : 임남댐, 평화의댐, 화천댐의 연계운영을 통해 남한측 홍수를 미연에 방지하는 협력체계 구축
 - * 이를 위해 홍수 예·경보 설비를 북한강 유역에 지원하고 임남댐 하류방류를 위한 직하류 발전소 설치 등 추진
 - * 홍수 예·경보 장비 지원은 우선 임진강, 북한강 공유하천에 구축하되 점차 타 유역으로 확대
-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종합 수자원개발계획(용수공급, 치수용 댐건설 등) 수립
 - 남북 통일 대비 용수 공급, 전력과 연계하는 홍수 방어 계획 수립이 필요
 - 남북경협 확대 등으로 북한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경우 생활용수 상수도의 수요 및 공산품 제조를 위한 공업용수 수요는 급격히 확대될 수 있음
 - 또한, 인구증가에 대비한 식량증산을 위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도 필요

③ 조림 및 산림·축산 방제 사업 추진

- 북한 산림 복구 계획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마련
 - 북한 산림 복구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북한 산림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므로 산림자원 현황 및 황폐지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 산림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개발이 필요
 - ‘남북 산림협력 공동 실무위원회’(가칭) 구성 : ‘남북 산림협력 공동 실무위원회’(가칭) 구성하여 남북 당국자 및 전문가와 추진 사업체가 참여하는 민관공동기구로 사업의 구체적 추진 방향을 협의
 - 이를 통해 남쪽의 황폐된 산림을 성공적으로 복원한 산림 녹화 및 생태계 복원에 관한 선진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고, 종합적인 북한 산림 복구 계획을 수립
- 남북한 공동 산림 방제사업 추진
 - 방제 기자재, 농약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의 실정을 감안할 때 피해 임지에 대한 집중적인 병해충 방지가 중요
 - 북한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산림 병해충 발생지역에 대한 공동조사, 공동 방제사업 실행 및 공동평가를 통해 방제 성과 제고가 필요
 - 특히, 금강산, 묘향산 등 산림 보호 지역에 대한 소나무재선충, 솔잎혹파리

피해가 발생할 시 남북 공동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 등 대북 축산 방제 확대

- AI 및 구제역 바이러스는 육지에서 50km까지 공기로 전파될 수 있어 DMZ 부근 남한 축산농가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음
- 따라서 남한은 가축전염병 소독 및 백신접종 지원 등 ‘남북한공동방제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조사연구를 북한에 적극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음
- * 이를 위해 남한 농림축산검역본부 + 북한 국가수의방역위원회 간 핫-라인 설치도 모색
- 한편 남북한 교류 협력의 질적 확대를 위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북한의 가축전염병 방제 및 예방을 위한 다양한 협력을 모색

④ 지자체간 상호 협력 증진

- 남북 지자체간 관계 연속성 확보 및 사업 시너지 증대 사례 구축

-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꾸준히 신뢰를 형성한 지자체들은 2003년 제주시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 2005년 남북강원도 민속문화축전과 같은 상호 이해 증진 계기를 마련하는 기회를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지역간·주민간 실질적 교류 증진

- 지역간·주민간 체육·문화·예술 행사를 통한 실질적 교류 기회 확대 필요

※ 동서독의 지자체간 상호 협력은 통일의 촉매제 역할 수행

- 1986년 4월 동서독간 자매결연 협정이 체결된 이래로 1989년 동독 붕괴시 까지 총 73건 성사
- (도시간 자매결연) 통일 과정에서 경제지원, 인력지원, 행정지원 등으로 이어져 통일 후 행정통합과 주민통합의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수행
- (재난에 대비한 상호 협력) 1973년 9월 동서독은 국경지역에서의 홍수, 화재, 산사태, 전염병, 병충해발생, 환경오염 등에 대해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대응하고, 수자원을 공동관리하기로 합의
- (접경지역 에너지 협력사업 추진) 접경지역 지자체간 갈탄, 천연가스 등

공동개발 사업 및 발전소건설사업 등 에너지 협력사업 추진⁵⁾

< 동서독의 도시간 자매결연 교류 내용 >

분야		내용
체육문화	교환경기	- 볼링, 축구, 탁구 등의 종목으로 광범위한 주민 참여 유도
	문화행사	- 전시회, 음악회, 영화상영, 작가들의 초청강연 등
	신문교환	- 16개 도시에서 지방신문 상호 교환
전문가회의		- 지방자치 및 지역행정에 관한 의견 및 경험교환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개최 · 도시계획, 노후화된 주택정비, 도로교통계획 · 환경문제, 자영수공업자, 의사, 노동자 및 노조원 의견 교환 등
청소년 상호 방문		- 15~30세 사이의 청소년 상호 방문

자료 : 통일원, 『동서독교류협력 사례집』, 1993. pp. 723~724.

⑤ ‘한반도 역사 바로세우기’ 추진

- 일제강점기 공동연구(독도, 동해표기 문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등), 고구려 고분 남북공동 발굴조사 등 기존 추진 사업 재개
-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 왜곡 등 동북아 역사·문화 전쟁에 대응
- 또한, 거래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 등 민족 언어 공동 연구를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도 병행 가능

⑥ ‘남북 청소년 하나되기’ 추진

- 남북 청소년 한민족 역사책 공동 발간, 남북한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 등 역사 문화 및 관광 등을 통해 남북한 청소년의 한반도 역사에 대한 공통 인식 함양
- 청소년 관광 및 역사 문화 분야 등을 중심으로 교류 확대를 추진하여 남북간 이질감 해소 노력이 필요

5) 서독 헬름슈테드(Helmsted)와 동독 하프브케(Harbke)는 1976년 이후 총 1,500만 톤 규모의 공동갈탄개발과 발전소건설사업에 관한 에너지 협력 사업을 추진. 공해를 유발하는 동독 하프브케의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대신에 서독 헬름슈테드에 새로운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헬름슈테드는 하프브케로부터 갈탄을 수입하는 대신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동독측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협력 추진. 이상준 외, 『통일독일의 지역개발 경험과 북한의 지역개발 과제』, 2000. p. 16.

※ 서독은 민족 동질감 인식을 위한 청소년 교류를 재정적으로 지원

- 서독의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對 동독 견학 여행을 장려, 청소년 여행에 대한 교통비 및 체류비 지원

※ 독일·프랑스 엘리제 조약

- 독일과 프랑스는 전통적·역사적으로 양숙 관계였지만, 1963년 엘리제 조약(외교·과학·문화·환경·교육 등) 이후 70여 차례의 정상회담과 상호 7백만 명 이상의 학생 교류를 실시(특히 청소년 교류는 의무화)
- 청소년 의회 구축과 공동역사교과서 : 2003년 1월 엘리제 조약 40주년을 맞아 발족한 독·프 청소년의회는 상대방의 처지에서 공동역사교과서를 기술, 2004년 발행 (2007년 12월 기준 양국에서 4만 5천권 이상이 판매)

⑦ ‘서평(서울-평양)대축제’ 추진

- 남북 체육분야 교류 재개
 - 경평축구대회 및 통일농구대회 부활, 각종 국제대회에서 남북 체육 단일팀 구성, 공동 입장 및 공동 응원단 추진 등
- 남북 민속문화 교류 확대
 - 민요, 남한의 봉산탈춤과 북한의 북청사자놀이 등 무형문화재와 관혼상제 등 전통민속문화 교류
 - 씨름, 줄다리기, 택견, 팔씨름 등 민속 스포츠 교류 추진
- 남북 순수문화 교류전 추진
 - 미술, 음악, 서예, 공예 등 순수문화 부문 남북간 정기 문화교류전을 추진, 남북 신진 예술가 발굴 및 관련 시장 조성

4. 시사점

- 남북 상호 신뢰 회복과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용이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첫째, 사회문화협력사업 추진의 독자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정치군사적 상황에 종속되지 않는 사회문화협력사업의 독자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추진위원회’ 구성 : 2007년 11월 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된 남북간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추진위원회’ 구성하여 ‘남북사회문화협정’ 체결 등 협력 협의의 정례화·제도화 추진
 - 둘째, 인도적 지원 등 시급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
 - 제약공장 및 병원 설립, 운영 사업 등 주로 종교계의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지속하고, 정부 차원으로 확대 추진이 필요
 - 셋째, 기추진 사업의 재검토 및 재개 노력 필요
 - 교육학술·언론출판·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재개 노력이 필요
 - 역사 유적 발굴 및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성과를 도출한 기추진 사업들을 중심으로 한 재개 노력이 필요
 - 넷째, 한반도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 등 장기적이고 중요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 나무심기사업, 접경지역 공동방제사업 등 기존 사업 지속 추진 및 DMZ를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하는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반도 환경 보전 사업 추진

이해정 연구위원 (2072-6226, hjlee@hri.co.kr)

이용화 연구위원 (2072-6222, yhlee@hri.co.kr)